

세계를 선도하는 시멘트 산업 국가가 되길 기원하며...

강 원 호 (한국세라믹학회 회장)

옛날에 바람과 추위를 막아주고 적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수단으로 움막 또는 토담집을 짓게 되었고, 이렇게 시작한 주거문화는 시멘트와 유리의 발명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변화인 오늘날의 주거문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도로공사, 수력발전소 등의 거대한 구조물의 구축 등 역사(役事)를 통하여, 인류의 문명 문화에 미친 힘이 더없이 크다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현대화도 시멘트 산업이 주요 기간산업으로 국가 산업의 동력에 중심이 되어 크게 기여하였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 전형적인 굴뚝산업, 자본집약산업, 에너지 산업 및 자원 소비산업들이 환경 문제와 더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시멘트 산업은 우리나라의 경우 저가의 중국산 시멘트의 유입과 국내 건설경기의 냉각으로 경영에 이중 삼중으로 압박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역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멘트인들의 각고의 노력이 있으리라 생각되며, 또한 이루어지리라 믿으며, 시멘트 산업에 대하여 문외한인 사람이 시멘트 전문가들에게 말씀드리기에는 매우 송구스럽기만 하나, 몇가지 망상(望想)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멘트 기술에 있어서 분말화 기술의 고도화의 여지는 없는지요?

시멘트는 마이크로 세계의 작품입니다. 분말기술 산업은 이미 나노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시멘트가 Nano 사이즈로 될 때 현재의 시멘트의 제조공업, 사용용도와 어떻게 상치 또는 부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새로운 발상의 전환은 새로운 상품 시장의 개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째, 시멘트 기술과 타기술간의 융합기술 제품의 개발을 시도함이 어떨지요?

요즈음, IT, BT, NT 다음으로 FS&T(Fusion Science & Tech.) 산업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래기술의 Trend를 의료, 에너지, 우주, 환경 등 모든 산업이 융합되는 FT의 시대를 전망합니다. 기술간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이같은 기술들의 상승적, 결합을 통하여 새로운 형태의 기술과

시 론

서비스 및 신산업이 창출되고 있는데, 선진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융합을 고부가가치 창출에 필요한 첨단기술로 인식하고 융합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도시(U-City)의 IT 통신망과 건설이 연계되는 건축 산업에서의 시멘트 산업의 융합기술의 여지는 없는지, 폴리머(Polymer)와 시멘트(Cement)를 하이브리드(Hybrid)화 하는 혼성기술, 금속과 시멘트의 복합기술 등의 획기적인 퓨전 테크놀로지(Fusion Technology)를 통하여 제품을 개발할 여지는 없는지요.

셋째, 가치혁신을 통한 차별화와 저비용의 지속적인 블루오션(Blue Ocean) 창출.

산업은 끊임없이 창조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확장되며, 강하고 수익성 있는 성장을 창출하는 새로운 시장공간을 열어나가며, 새로운 수요창출과 장악을 통하여 가치와 비용을 동시에 추구하는 블루오션전략(Blue Ocean Strategy)의 도입입니다. 기존 시멘트의 용도와 시장을 뛰어넘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블루오션전략을 추진할 여지는 없는지요? 현재의 난관도 극복하고 세계 선두 주자로서 나아갈 수 있는 블루오션 개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전략의 차별화와 저비용을 동시에 추구하여 기업과 고객 모두에게 블루오션을 창출하는 시멘트 산업이 될 수는 없는지요.

넷째, 21세기를 추구하는 시멘트 산업의 대응과 전력은 어떠한지요?

21세기 인류가 직면하는 문제로는 에너지, 식량, 환경 등이 있다고 합니다. 21세기를 추구하는 시멘트 산업으로서 석유자원을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제조공법에 의한 제품 생산기술의 개발과 아울러 에너지를 흡수, 배출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소재로 개발, 에너지의 저장 및 에너지의 변환에 이용될 수 있는 발상은 어떨까요. 앞서도 기술하였지만 하이브리드화 또는 복합화된 소재의 개발과 새로운 응용범위를 확대 개발하여 에너지 절약형 흡수·방수, 대기오염 물질을 흡수가 가능한 내·외장 건축재, 산의 방재공사, 대도시 토목공사, 댐공사나 하천공사시 식물이 식생할 수 있으며, 어류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친화 시멘트 또는 지하도시, 해저도시와 같은 대형 역사(役事)에 친환경 콘크리트 같은 것들의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없는지요.

끝으로, Fun Industry 개념의 도입을 통한 즐거운 산업체.

요즘 들어 많은 산업체들이 Game Working의 개념을 도입하여 종사자들이 즐겁게 생활하며 생산효율도 높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멘트 산업에서도 제조활동이 게임을 하듯 즐기며 근무할 수 있는 산업체로의 전환은 어떤가 합니다. 제조공정이 게임하듯 재미있고 사무업무가 Game 하듯 즐겁고 종업원의 휴식시간도 게임을 하면서 즐기며 항상 고득점에 도전하는 게임과 같이 신기록을 창출하는 즐겁고 새로운 직장 풍토를 만들어봄이 어떨까요.

아무쪼록, 우리나라의 시멘트 산업이 활성화 되고,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산업으로 우뚝 서게 되기를 기원하여 봅니다. ▲